

찬호 미일 올스타전 불참... 다저스 20승 전폭지원

기사하단
관련 2면



세계 11위 깨졌다

US오픈테니스 3회전 진출

이형택



지수원 홀홀 벗었다

‘새로운 역사’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이 1일(한국시간) US오픈테니스 남자단식 2회전에서 올 시즌 프랑스오픈 4강에 올랐던 13번 시드의 프랑코 스켈라리(아르헨티나)에게 강력한 포핸드 스트로크를 날리고 있다. 뉴욕 | AP특

이형택(24 삼성증권)이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형택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메도의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2000US오픈(총상금 1500만달러) 남자단식 2회전에서 예상을 깨고 13번시드 프랑코 스켈라리(아르헨티나)를 3-0(7-6 7-5 6-2)으로 제압, 32강이 겨루는 3회전에 진출했다. 스켈라리는 ATP(프로테니스협회) 랭킹포인트 11위, 52주 순위 13위에 올라 있는 강호. 국내에도 잘 알려진 패트릭 라프터나 마크 필리푸시(이상 호주)보다 랭킹포인트가 높고 순위가 높다. 세계 182위인 이형택은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랜드슬램대회 본선 승리의 쾌거를 거둔 데 이어 3회전 진출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다.

다. 메이저대회에서 시드 선수를 이긴 것은 국내 테니스 사상 이번이 처음. 또 이형택은 남자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의 선수를 꺾는 기록도 세웠다. 이형택은 88년 서울올림픽에서 김봉수가 당시 세계 12위였던 앙리 르콩트(프랑스)를 물리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여자로는 박성희(삼성증권)가 지난 95년 세계 6위 다테 기미코(일본)를 이긴 적이 있다. 이형택은 이날 승리로 130위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택은 첫 세트를 타이브레이크 점진 끝에 따낸 뒤 2세트에서 5-2까지 뒤졌으나 잇달아 5게임을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이형택은 3세트에서 스켈라리의 첫 서비스게임을 빼앗으면서 승리를 예감했다. 이형택은 첫 서비스 성공률과 실책 등 모든 통계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한국 남자테니스도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형택은 3회전에서 세계 57위 라 이너 슈틀러(독일)와 16강 진출을 다투는데 여기서 이길 경우 그랜드 슬램대회 최다 타이틀을 자랑하는 피트 샘프러스(미국)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최정식기자 chois@sportsseoul.com

LA 다저스의 박찬호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벌어지는 미일올스타게임에 불참한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 이래 최상의 투구를 하고 있는 박찬호는 부상을 염려해 미일 올스타게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찬호의 구위나 성적을 고려할 경우 미일올스타게임 발탁은 거의 자동케이스.

박찬호는 지난 98년에도 뽑힐 기회가 있었으나 방콕아시아게임으로 뒤로 미뤘다. 이번에는 부상을 염려해 본인이 불참을 선언한 것.

내일 정기휴간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공모전

세계 축구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2002년 월드컵을 위해, 한국축구의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 월드컵 본선 4회 연속 진출이라는 한국축구의 위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손으로 직접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주세요.

- 공모기간: 2000년 9월 1일 ~ 11월 11일
- 참가대상: 디자인 관련은 개인, 단체 또는 일반인
- 시상내역: 상금 총 1천 9백만원
- 1등(1명) - 상금 1000만원
- 2등(2명) - 상금 300만원
- 3등(3명) - 상금 1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 참조
- 문의전화: 대한축구협회(02) 2002-0908, 미디어스포츠(02)2005-5743

■주최: 대한축구협회(KFA) ■주관: 월간디자인

LA 다저스의 박찬호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벌어지는 미일올스타게임에 불참한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 이래 최상의 투구를 하고 있는 박찬호는 부상을 염려해 미일 올스타게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찬호의 구위나 성적을 고려할 경우 미일올스타게임 발탁은 거의 자동케이스. 박찬호는 지난 98년에도 뽑힐 기회가 있었으나 방콕아시아게임으로 뒤로 미뤘다. 이번에는 부상을 염려해 본인이 불참을 선언한 것. 박찬호의 2000년 미일올스타게임 불참선언은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조언 때문. 보라스는 "최상의 성적을 거둔 투수가 시즌이 끝난 뒤 벌어지는 미일올스타게임에 참가했다가 다음 시즌에 부상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시즌 후 번외경기로 벌어지는 미일올스타게임에 출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라스로서는 '움직이는 돈덩어리'인 박찬호 같은 슈퍼스타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부상은 선수나 에이전트에겐 최악의 적이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래 여지껏 크게 부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올 시즌 200이닝 이상을 투구하고 미일올스타게임에 출전해 무리할 경우 2001시즌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98년 생애 최대인 220.2이닝을 던지고 방콕아시아게임에 출전한 뒤 지난해 부진에 빠진 적이 있다. 미일올스타게임은 시즌 성적을 고려해 선수 개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선수가 출전 여부를 확인한다. 애리조나 김병현도 최근 초청장이 오더라도 미일올스타게임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일올스타게임에 출전하면 출전수당, 승리수당을 포함해 선수 개인당 약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는 보장받는다. 보라스의 지적은 맞다. 지난 92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드웨인 워드는 미일올스타게임에 출전한 뒤 93.95 시즌을 뛰고 팔꿈치 부상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워드는 미일올스타게임 사상 가장 빠른 시속 158km의 공을 뿌린 마무리 투수였다. 출전 당시 나이는 28세. 미일올스타게임은 역사가 오래됐지만 정기적으로 열리기는 86년부터이다. 최근에는 2년마다 열리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지난 90년 역대 처음으로 일본 원정게임에서 3승4패1무로 열세를 보인 바 있다. 밀워키(미 위스콘신주)문상열특파원 texas@sportsseoul.com

6

“연에게 입문 6년 만에 처음으로 홀홀 벗어났습니다. 총무로에서 안벗기로 소문난 저이지만 작품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영화 ‘투깝스’ 1, 2편의 터프한 여형사 지수원(31)이 4년 만의 컴백작 ‘베니싱 트윈’(윤태웅 감독 Y2시네마 제작)에서 ‘한국의 샤론 스톤’이 됐다. 그는 베드신에서 우물쭈물하는 신인 구필우를 적극적으로 리드하며 첫 베드신을 능수능란하게 연기해 스타프로부터 ‘샤론 스톤’이 따

로 없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베니싱 트윈”은 쌍둥이여니의 죽음에 상처입고 한 낯선 남자와 격정적인 섹스에 빠지는 한 주부의 이야기가 축이다. 감독을 믿고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게 첫 베드신을 ‘환상적’으로 처리한 지수원의 비결. 러시킴을 보고 “그림이 너무 예쁘고 느꼈다”는 그의 유혹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유진모기자 ybacchus@sportsseoul.com 사진 | 조홍수기자 magic@sportsseoul.com

?

“2002년 세계축구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